



# 광남일보



조간 제 8103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음력 4월 26일)

## 반도체 거점 떠오른 전남광주... “지역균형 발전 방향키”

### 삼성·SK 신규 투자설에 지역사회 기대감 확산 첨단·장성군·금호타이어 부지 등 후보지 거론 정주 여건·전력 인프라·인력 확보가 최대 과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수도권 반도체 투자 검토설이 확산되면서 호남권이 차세대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장성을 중심으로 첨단 패키징(후공정) 시설 조성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역 산업계와 지자체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다만 투자 실현 여부는 전력과 용수, 교통망, 인재 확보, 정주여건 등 복합적인 입지 경쟁력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지역 정치권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기지의 일부 기능을 충청권과 호남권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진 첨단 패키징 시설이 우선 검토 대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식적으로는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련 논의가 정부 차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리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공정보다는 첨단 패키징과 테스트, 연구개발 기능 등을 중심으로 한 후공정 시설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I 반도체 시장 확대와 함께 첨단 패키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광주 첨단산단 일원과 전남 장성군, 금호타이어 광

주공장 등이 거론된다.

광주 첨단산단 일원은 국가 AI데이터센터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본부 등 연구개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AI 반도체 및 후공정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첨단3지구와 미래차 국가산단, 군공항 이전 예정지 주변 개발사업 등과 연계될 경우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전남 장성군 역시 강력한 후보군으로 꼽힌다. 장성은 광주 생활권에 포함되면서도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호남고속도로와 호남선 철도, 장성역 등을 통한 물류 접근성이 우수하다. 최근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 추진 등으로 전력 인프라 확보 가능성도 높게 평가된다.

또 다른 잠재 후보지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도 거론된다. 광주송정역과 인접한 약 41만㎡ 규모의 대규모 부지로 향후 금호타이어의 합병 이전이 완료되고 부지 활용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첨단산업 유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KTX 광주송정역과 공항,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도심 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광주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유휴부지라는 희소성은 강점이지만 향후 개발 과정에서 토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 등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 요소로 꼽힌다. 때문

에 현재로서는 매각 및 개발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첨단산단이나 장성처럼 직접적인 후보지로 거론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가용 부지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이 실제 투자 후보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핵심 인프라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입지 선정의 핵심은 결국 전력과 용수다. 첨단 패키징 공장이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대규모 산업용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수도권의 경우 전력망 포화과 부지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정부가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같은 점에서 호남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향후 RE100 산업단지 조성 가능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투자 매력으로 거론된다.

인재 수급도 중요한 변수다. 광주에는 GIST를 비롯해 전남대, 조선대 등 이공계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대학이 위치해 있다. 다만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설계·공정·장비·품질 분야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산학협력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태계를 고려하면 협력업체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도 과제로 꼽힌다.

정주여건 역시 투자 유치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반도체 기업들은 수천명 규모의 고급 인력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2면으로  
김은지 기자 eunji@gwangnam.co.kr



점시꽃 당시 10일 오후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도로가에 활짝 핀 점시꽃이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흰색과 분홍색, 붉은색, 노란색 등 선명한 색의 매력적인 꽃으로 유명한 점시꽃은 전 세계 현대 지역에서 관상용과 약재로 널리 재배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독립운동 성지’ 서재필 생가 경매로 넘어가나

### 개인 소유 90% 지분 법원 강제경매 절차 진행 중 “독립정신 깃든 역사적 공간...보존대책 마련해야”



서재필 선생 생가 전경.

대한민국 근대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의 선구자인 서재필 선생의 생가가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된 생가의 상당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면서 독립정신이 깃든 역사 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성군 등에 따르면 보성군 문덕면 가내마을에 있는 서재필 선생 생가 지분 가운데 개인 소유분에 대한 강제경매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 생가 지분은 서재필기념사업회 10분의 1, 개인 소유자가 10분의 9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매 대상은 개인 소유자인 생가는 서재필 선생이 태어나 7세까

지 성장한 곳으로, 성주이씨 종택인 의가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학문을 익힌 공간이다. 이후 선생은 갑신정변에 참여한 뒤 미국으로 망명해 한국인 최초의 서양인사가 됐고, 귀국 후에는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설립해 자주독립과 근대화 운동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생가는 단순한 고택을 넘어 대한민국 근대사와 독립운동사의 출발점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보성군과 서재필기념사업회는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2년부터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사당 건립과 송재로 개설, 독립문 조성, 유물전시관 건립, 생가 복원 사업 등을 진행해 2004년 서재필기념공원을 완성했다. 기념공원 조성에는 국비 81억원, 도

비 24억원, 군비 14억원 등 총 124억원이 투입됐다.

생가는 기념공원에서 약 1.4km 떨어진 가내마을에 있다. 원래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 소실됐으나 예산을 들여 가내당과 안채, 별당, 아래채 등 주요 건물을 복원했다.

현재 생가는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국가현충시설로 관리되며 학생들의 역사교육과 현장체험학습, 독립운동사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소유 지분이 경매에 부처지면서 향후 보존과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면서 계속  
임영진·보성·임태형 기자 looks@

## 이 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영구 도입” 제시

### 농식품부, 5곳 추가 선정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농어촌기본소득을 영구 도입하고 지급액을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효과로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했다는 기사를 공

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사임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 농정 사업 중 하나다. 현재 신안과 곡성 등 전남 2개 군을 포함, 전국 10개 군 단위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

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 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가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뤄지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5곳 안팎의 시범지역을 추가 선정기로 하고, 최근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44개 군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주소지가 광양이 아닌 광양을 응원하는 누구나!

광양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받고  
광양시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

광 양 상 공 회 의 소 회 장 우광일

농협중앙회광양시지부 지부장 서형인

광 양 시 산 림 조 합 조합장 송백섭

광 양 농 업 협 동 조 합 조합장 허순구

동 광 양 농 업 협 동 조 합 조합장 이돈성

광 양 향 만 향 노 동 조 합 위원장 장한채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